

테마칼럼

정미경의 세상보기

이승길의 글

김고을의 삶

정보·문화 세상

CCTV 왜 필요한가



이상길

범죄자는 이 세상이나 e-세상에서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연세 살인범 강호순 검거의 일등공신은 물론 열심히 사건해결을 위해 땀 흘린 경찰관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전자 장비는 CCTV(폐쇄회로 TV)였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군포 보건소의 CCTV와 강호순 집 주변에 설치된 CCTV가 큰 도움을 준 것이다. 군포 보건소와 농협 일대에는 300여 개의 CCTV가 있었고 여기에는 약 7천대의 차량이 찍혔는데 경찰은 이들 차량의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그 결과 피의자의 차량번호가 나왔고 감시를 집중한 끝에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퍼 판옵티콘은 전자 지문, 전자 건강 보험증, 전자 주민증 등에 대한 데이터 감시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 기관과 거대 정보 수집기관의 정보 관리이다. 판옵티콘에 갇힌 죄수가 자신이 감시를 당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듯이 전자 판옵티콘의 정보망에 노출된 사람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국가나 직장에서 드러나는지 모른 채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대표되는 요소는 주거지나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인데 이 같은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는 항상 있어왔다.

이런저런 점을 볼 때 CCTV는 확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에서 작동되는 CCTV 대수는 약 3천만 여대로 1824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CCTV를 사용했던 영국은 14명당 1대로 1위, 미국은 22명당 1대이며, 우리나라는 18명당 1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 단위 면적당 설치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km당 25대로 세계최고의 설치국가라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개값 보다 못한 소값 두고만 불건가

영양출신의 이철렬 감독이 만든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오늘 전국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다. 2억원을 들여 만든 '워낭소리'는 팔순 농부 부부와 마흔 살 소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독립영화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면 100만 명은 상업영화 1천만 명과 맞먹는 '꿈의 숫자'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황폐화됐다는 농촌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가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낙농유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의 낙농가 수는 432곳으로 1년 전에 비해 8.5%(40곳) 가량 줄었다. 지역 내 10농가 중 1곳이 소 사육을 접은 셈이다.

요동치는 금융시장 불안해소 시급하다

금융시장이 다시 심상치 않은 모습이 다. 실물 경기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법 제2 금융위기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채권 시장이 급락하는 있는 것이다.

필 수 있다. 한국의 5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왑(CDS)가산금리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400bp대 증반으로까지 치솟는 것도 이유이다.

특별기고

김진



전남대학교 후배 학생 여러분, 저는 1974년에 전남대학교 철학부에 입학하였으며, 1980년 5·18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여러분의 선배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989년 신설된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특별 임용되어 올해 20년을 맞게 된 사람으로서, 최근사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상극적이고 폐쇄적인 정치논리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5·18의 정신을 유적되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5·18 당시 맨발로 죽음을 면한 세 번째인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후 여러분은 2007년에 전남대학교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몽준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울산과학대학) 이사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저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 18일 또 다시 반대시위를 함으로써, 정몽준 이사장 스스로 수여식을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인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가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몽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이 인간 정몽준을 관찰하고자 할 경우에 울산대학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울산공업학원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실만으로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남대 후배들에게

는 울산대학교에 특별재용이 되어 지금까지 교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로라면 5·18 민주화 운동의 한 복판에서 시위대가 되어 투쟁했던 전남대학교 출신은 어느 곳에서도 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억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이고, 수많은 호남출신 인사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남대학교 후배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5·18 정신을 보다 고귀한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5·18 묘지에 참배하러온 정치인들이 그날밤 톨살통에 갇던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5·18 정신을 불모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소인배들의 무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5·18 희생자들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5·18 가해자들 역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처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5·18 정신을 불모로 삼아 정치적 이익이나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無等鼓

로또에 당첨되면 과연 행복할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니다'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우선 건강이 나빠진다. 프랑스 파리 경제대의 앤드류 클락(Clark)과 베네딕트 아푸이(Apouey) 박사팀은 1994년에서 2005년 사이 영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8천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또 당첨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다 절망이나 낮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파산율이 높아졌다. 당첨 후 5년 후에는 5%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의 당첨자는 파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흥청망청 쓰다 보면 아무리 큰 돈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할 수 있다.

로또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중고칼럼

홍숙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마음이 고요해 지질 않아요" 입장(入定)후 한 교도님이 말씀하신다. 입장(入定)은 조용히 마음을 관(觀)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다. 짧은 시간임(보통 5-10분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시간은 아니다.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입장을 하고 나서 깨운할 때보다 찜찜할 때가 더 많다.

다만 망념인줄만 알아 둘 뿐이고...

각이 일어나는 것에 별 태클을 걸지 않고 살아가지만 입장시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전 안 되겠지요? 입장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따라가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이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도 모르겠고..."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수행하는 방법 즉 마음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 인 줄만 알

서 또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망념을 망념인 줄만 알아두기가 쉽지 않다.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망념이 침노하면 바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망념을 섬기시게 여기거나 '망념이 많이 일어나는 나는 안돼' 하고 낙망하기가 심상이다. 수행결에서도 '생각이 일어나를 두려워 말고 오직 깨침이 더딤을 두려워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깨쳐라! 깨치면 곧 없어진다.'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도적이거나, 그 생각 때문에 사실 더 힘들고 찜찜할 수 있습니다.